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 발행일 2011. 11. 1
발행인 이창기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 (월평동 160-20)
홈페이지 www.djdi.re.kr
전 화 042-530-3534 | 팩 스 042-530-3508
제 작 인커뮤니케이션즈

» CONTENTS 연구원소식 | 대중교통 환승패턴 분석 및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 | 경제동향 | 행사안내

지속가능성 도시 1위 대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대발연,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 출범 및 시민토론회 개최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5일 11시 대전도시철 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대전의 지속가능성 1위 도시 유지를 위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2명으로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 11월에 중앙언론이 평가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도시에서 대전이 1위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대전이 지속가능성 도시 1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금년 3월에 지속가능성 조사센터가 설치됐고, 이번에 지속가능성 시민위원회는 각계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앞으로 위원회는 환경, 경제, 사회, 명성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과제발굴과 대안을 모색하며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를 띠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다양한 정파를 떠나 대전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시민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연간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2회의 분과 워크숍을 갖게 된다.

이창기원장은 위원회출범의 의미를 '온라인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 하고 있으나 응모건수가 매우 저조하여 오프라인 차원의 시민위원회를 발족하여 신선하고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대전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연구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고 밝혔다.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정책학회와 대전시 교육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획세미나 개최

대전발전연구원과 한국정책학회(회장 : 김현민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 교육정책의 현황과 최근에 부각된 교육정책의 현안들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발전 연구원의 연구진과 한국정책학회 임원(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3일(목) 오후 4시 부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행정학회 박정수 교수(이화여대)는 주제발표에서 대전교육의 여건진단을 해보면 서울, 인천, 대구에 이어 선두 그룹에 속하며, 지방 교육 자체의 방향이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문제해결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갈등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 박노동 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평생교육정책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는 대전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전국 최초로 2011년 7월에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여건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배달강좌제' 전면 시행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정착시킨다는 입장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체계 정비 등 보다 발전된 방안을 적용토록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 교수님의 발표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교육정책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전시 교육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정책대안 및 실천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 G9대전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이창기)는 10월 4일 유성호텔에서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와 G9 대전충청권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G9 대전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임홍철 대전광역시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화진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및 G9지역 시·군 관련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인근 주변 G9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광역경제권정책의 내실화가 요구됨에 따라 광역경제권 중심적인 대전광역시와 주변 G9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공동사업 발굴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의 장철순 대표연구위원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강연과 대전광역시 광역행정담당 김용두 사무관은 'G9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최길수 연구위원의 'G9협력사업의 평가과 신규과제 제안',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 광사업단 문경원 단장의 '대청호 녹색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연계협력방안', 충남대학교 강병수교수의 '대전광역시와 G9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방안'의 4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이병민 교수의 사회로 대전개발위원회 박진호 사무처장,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양홍모 사무처장, 충북개발연구원의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 충남발전연구원의 생태규 기획조정실장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j



“ ‘대전발전연구원’ 과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학술·연구 교류 협약체결 ”

제10차 동북아경영경제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대전발전연구원(이창기)은 10월 21일(금) 22일(토), 충남대학교와리베라호텔에서 "원아시아를 향한 동북아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제10차 동북아경영경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 중, 일, 러시아, 몽골, 베트남 6개국에서 25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국내외에서 총 80편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거점국립대학 경영경제관련 연구소의 모임인 한국경영경제학회(회장 충남대학교 문화철 교수) 및 한국통상정보학회 중국 상업경제학회 일본 나고야대학 Asian COFE Program,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연구

개발특구지원본부,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루어졌다.

대전광역시장 주최의 민찬 행사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와의 협정서를 교환하고 향후 대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 연구원(소)간 연구원 교류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하나의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의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주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범위도 아시아를 지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j



“ 2011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컨설팅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1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 1층 대강당에서 [2011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컨설팅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전시 및 각 자치구의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자치구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브리핑을 통하여 정책개선의 실적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구는 [장수축하금 지원, 서구는 [공원시설확충, 유성구는 [디문화기정 지원, 대덕구는 [정보화교육사업의 과제를 각각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서구의 [공원시설확충 사업은 기존의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한 공원 내의 등산로 계단 높이와 시설물의 규격의 기준을,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여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의 높이와 시설물의 규격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개선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각 컨설턴트별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을 위한 집단



모임을 가졌다. 컨설팅은 2011년도 성별영향평가 지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개선에 대한 방안 즉,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의 개선, 사업수행방식에서의 개선, 추후 정책개선 항목 및 개선방법,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성주류화 전략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j

“ 사회서비스 발표회 성황리에 마칩표 ”



대전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10월 8일(금) ~ 9일(토) 이틀에 걸쳐 엑스포시민광장에서 2011 한발 나눔 대축제와 연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대전 시민과 함께한 축제는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의 리턴댄스, 장애인들의 화음악기 공연, 노인들의 자이브, 사물놀이 등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객들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졌다.

또한, 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열어 과학실험, 페이스 페인팅, 인마 서비스, 심리검사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더불어 나눔 축제와 연계하여 물품을 팔아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도 마련 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수익금으로 연말에 어려운 가정에게 연탄을 제공하고 감정을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j

“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과 서울행정학회(회장: 채원호 키톨릭대 교수)가 주최하고 우송대학교가 주관한 2011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0월 14일(금) ~ 15일(토) 대전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1991년 민선의회가 부활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 20년을 회고하고 과제를 토론했다. 기획색션을 마련하여, 세계화, 지방화, 디문화 환경의 진전에 따른 문제점을 시러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일찬 담론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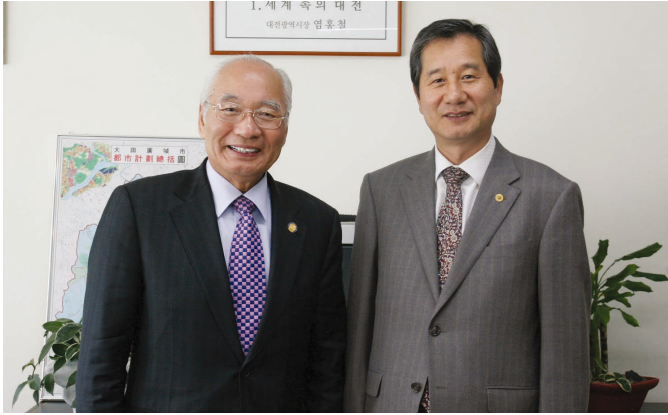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전비전 2030'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24개의 색선별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도시경영연구실장과 김흥태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부자도시", "지속가능성 최고도시" 구축 전략과 "인간중심"의 도시기반 설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최갈수 연구위원은 지



방분권의 회고와 쟁점 주제의 색선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j

“미국 워싱턴주 신호범 상원의원” 대발연 방문



〈신호범미국워싱턴주 상원의원좌파이창기대전발전연구원장〉

미국워싱턴주 신호범 상원의원이 대전과 시애틀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 28일 대전발전연구원을 방문하였다. j

“한국비교정부학회와” 학술대회 공동개최



대전발전연구원원장(이창기)은 10월 26일(수) 27일(목)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농촌지역발전과 지역사회공동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j

“전국 시도연구원 초청 대청호 오백리길 제6차 팸투어 개최”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10월 21일 전국 시도연구원을 초청하여 대청호오백리길 팸투어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이언호(부신발전연구원) 회장을 비롯하여 11개연구원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행사는 대청호오백리길 21코스인 로하스구간의 걷기행사와 사업설명회,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 시도연구원 체육대회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팸투어 행사는 대청호오백리길의 전국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연구원을 초청하여 우리지역의 생태자연환경을 소개하고

오백리길에 대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찾아 오백리길을 활성화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전국 시도연구원 간의 의견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창기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시도연구원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전국 시도연구원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연구성과를 위한 서로간의 협력과 의견교류의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 녹색생태관광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각 지역에서 모인 연구원들은 현재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에서 추진중에 있는 대청호 오백리길 구간을 둘러보며 대청호의 자연을 만끽하며, 대청호 주변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기는데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후 행사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각 연구원 간의 족구 대회가 열려 서로의 화합을 다졌으며, 대회에서 단합된 이미지를 보여준 연구원은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님과 연구원장님들의 시상도 함께 이루어져 공동체 의식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추진된 행사는 대청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과 고구마 등을 행사 기념품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연환경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행사로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j



전국 시·도연구원 초청 대청호오백리길 제6차 팸투어

일시 : 2011. 10. 21(금)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 후원 : 지식경제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충청협력단

대중교통 환승패턴 분석 및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범 규

1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나,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임
- 특히 대전시는 2008년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노선과 지선노선 체계로 개편하면서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환승은 이용자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대전시 대중교통 환승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승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두 가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임
-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통행패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전시 대중교통이용객의 환승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패턴 분석에 근거하여 환승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개선방향을 모색함

2 환승패턴 분석

환승비율 분석

- 환승통행관련 분석은 교통카드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학기간, 휴일기간을 제외한 2011년 5월 17일의 일통행량을 대상으로 분석함
- 대전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합한 총 1일통행량은 608,732통행으로 분석
- 이 중 환승통행량은 112,325통행으로 총 1일통행량(608,732)의 18.45%를 차지

구분	1일 총통행량	환승통행량	환승통행비율(%)
전체	608,732	112,325	18.45
시내버스	498,311	98,143	19.70
도시철도	110,421	14,182	12.84

〈표 2〉 대전시 수단별 환승통행량

- 유형별로 보면 도시철도는 1호선만 운영되고 있어 도시철도간의 환승통행은 없으며, 시내버스간의 환승비율이 높고, 일부 시내버스↔도시철도의 환승이 나타남
- 시내버스↔시내버스간의 환승통행은 98,143통행으로 총 1일통행량의 16.12%
- 시내버스↔도시철도간의 환승통행은 14,182통행으로 총 1일통행량의 2.32%
- 1일 환승통행량에서 시내버스↔시내버스간의 환승통행이 87.37%, 시내버스↔도시철도간의 환승통행이 12.63% 차지

환승수단	1일총통행량 (통행)	1일환승통행량 (통행)	1일환승통행 대비 환승비율(%)	1일총통행 대비 환승비율(%)
시내버스↔시내버스	608,732	98,143	87.37%	16.12
시내버스↔도시철도		14,182	12.63%	2.32

〈표 3〉 대전시 환승유형별 환승통행량

환승장소 분석

- 대전역 부근, 서대전네거리역 부근, 정부청사역 부근, 유성온천역 부근의 환승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

- 대전역(6,595/버스) 중앙시장(1,873/인호로), 대동역(1,810/도시철도) 등
- 서대전네거리역(2,427/버스), 서대전네거리역(1,317/도시철도), 병무청(1,054) 등
- 정부청사역(1,247/도시철도)역, 둔산경찰서(1,245), 이마트(1,038) 및 대덕대로 상의 은하수네거리(2,422), 서구보건소(1,262) 등
- 유성온천역7번출구(1,857), 유성온천역(1,768/도시철도)역, 유성온천역6번출구(1,222) 및 인근 충남대학교(1,780) 등

순위	환승장소	환승 통행량	환승비율 (%)	순위	환승장소	환승 통행량	환승비율 (%)
1	대전역	6,595	53.0	14	목척교	1,317	34.0
2	서대전네거리역	2,427	56.5	15	서대전네거리역(도시철도)	1,317	23.7
3	은하수네거리	2,422	40.2	16	대동역 7번출구	1,312	73.7
4	복합터미널예정지	2,419	54.5	17	서구보건소	1,262	39.4
5	신원상가	2,367	58.5	18	정부청사역(도시철도)	1,247	24.3
6	도마시장	1,970	45.9	19	둔산경찰서	1,245	71.3
7	중앙시장(인호로)	1,873	52.4	20	유성온천역 6번출구	1,222	72.3
8	유성온천역 7번출구	1,857	70.4	21	판암역	1,156	65.2
9	대동역(도시철도)	1,810	34.7	22	판암역(도시철도)	1,084	30.5
10	충남대학교	1,780	24.9	23	대전역(도시철도)	1,054	19.4
11	유성온천역(도시철도)	1,768	32.2	24	대전충남병무청	1,054	44.4
12	중앙시장(중앙로)	1,753	58.7	25	이마트	1,038	44.0
13	현충원역	1,400	77.8	26	현충원역(도시철도)	1,023	50.6

〈표 4〉 환승통행량 상위 시내버스 정류장 및 도시철도역



통행거리 분석

•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객 491,198 중 무작위로 1,000통행을 추출하여 이용자의 실제 통행거리 분석

- 표본수: 직결통행 800통행(80%), 환승통행 200통행(20%) / 환승비율 고려

• 대중교통 이용객의 평균 통행거리는 7.04km로 나타남(정류장까지의 접근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만 고려한 거리임)

- 환승을 하지 않는 직결통행 경우의 평균 통행거리는 5.99km, 환승을 하는 경우의 평균 통행거리는 11.19km로 분석됨

구분	평균 통행거리(km)	
전체통행(1,000통행)	7.04	
직결통행(800통행)	5.99	
환승통행(200통행)	최초 정류소 ~ 환승 정류소	4.99
	환승 정류소 ~ 최종 목적지	6.20
	11.19	

〈표 5〉 대전시 대중교통 이용객 평균 통행거리

통행거리 분석

• 수단별 평균 통행거리는 시내버스가 6.50km, 도시철도가 7.76km로 분석

- 직결통행: 시내버스 5.35km, 도시철도 6.81km
- 환승통행: 시내버스 10.70km, 도시철도 12.15km

구분	전체 통행		직결 통행		환승 통행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도시철도
평균 통행거리(km)	6.50	7.76	5.35	6.81	10.70	12.15

〈표 6〉 수단별 이용객 평균 통행거리

통행시간 분석

• 교통카드 데이터의 승차시간과 하차시간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통행시간 분석

• 직결통행의 통행시간은 17분 12초, 환승통행의 통행시간은 40분 41초로 나타남

- 환승통행의 통행시간이 거리에 비하여 많은 것은 환승으로 인한 이동 및 대기시간이 발생하기 때문

• 환승활동의 소요시간(이동시간+대기시간)은 평균 8분 37초

- 시내버스-시내버스간의 환승시간은 9분 16초 소요
- 시내버스-도시철도간의 환승시간은 6분 56초 소요

3 환승체계 간방안

환승센터 조성

1) 환승센터 조성 사례

• 서울역 환승센터는 2009년 7월 주변 10여 곳에 산재되어 있던 버스정류장을 한 곳으로 통합 / 버스정류소 5열, 23면과 택시승강장 2열로 구성 / 약 94억원 소요

• 여의도 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일반버스를 중심으로 4열로 24면 설치 / 약 29억원(민간 24, 시비 5) 소요

• 청량리 환승센터는 도심과 시외곽 방향에 대하여 9열로 16면 설치 / 버스차로-택시하차차로-버스차로-버스차로-일반차로로 구성 / 약 22억원(민간 15억, 시비 7억) 소요

• 수원역 환승센터는 기존 버스정류장을 정리하여 2열 구조의 직렬형태로 운영



서울역 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청량리 환승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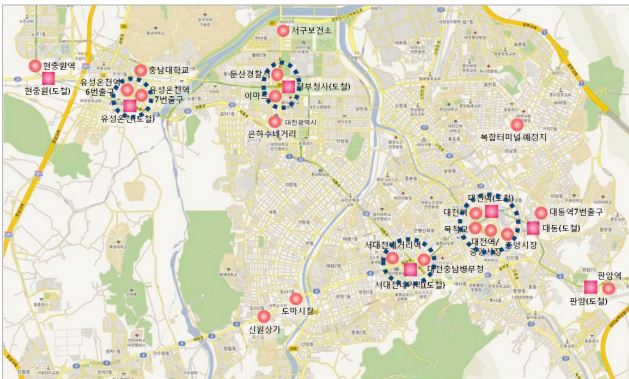
수원역 환승센터

〈그림 7〉 환승센터 설치 사례

2) 환승센터 조성 방안

• 환승이용객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대전역, 둔산, 유성 서대전 등 4개의 환승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대전역: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시내버스노선이 많은 지점으로 대전역 서광장, 중앙로 등을 활용하여 환승센터 설치
- 둔산: 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과 주변 시내버스정류장간의 환승이 많은 실정으로 정부청사역 인근 대덕대로 광장 일부 점용을 활용하여 환승센터 설치
- 유성: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과 인근 시내버스정류장과의 환승이 많은 실정으로 유성온천역 주변 대학로에 환승센터 설치
- 서대전: 도시철도, 시내버스노선이 많으며 환승이 많은 지역으로 서대전 광장을 일부 활용하여 환승센터 설치



〈그림 8〉 환승센터 설치 필요 지역



〈그림 9〉 환승센터 조성 개념도

환승 이동시간단축

• 환승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환승거리를 최대한 줄여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환승이용객들은 환승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부담, 환승교통수단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부담을 느낌

• 환승은 급격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내버스 ↔ 도시철도간의 환승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시내버스 ↔ 시내버스 간의 환승 또한 노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일정거리의이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지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정류소의 위치를 조정하여 급격 환승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사례

- 중앙로 (대전역앞)정류소 정차노선 조정 : 대전역(도시철도) 이용객과 대전역 동광장 → 중앙로 인동 - 중앙로 방향 시내버스 노선 정류소와의 환승거리가 길기 때문에 환승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을 대전역 정류소에 정차시키도록 조정
- 도마네거리 시내버스 정류소 이전 : 가수원 방향 직진노선 (급1201,202,613,916)과 변동 방향 직진노선(312619)의 환승이 많으나 이동거리가 멀므로 버스 정류장 위치를 도마네거리방향으로 조정



정류소 시설개선

-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은 정류소에는 승객들의 이용 및 환승 편의를 위한 대형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승객이 많은 일부 정류장은 대형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도 많은 실정
- 따라서 이들 정류장에 대해서는 대형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나이가 온열 의자, 냉난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적으로 대형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할 곳은 1일 이용객이 2,000명 이상이거나, 환승 이용객이 1,000명 이상인 정류장으로 설정하면 42개소로 파악됨



〈그림 10〉 기 설치된 대형 유개승강장



〈그림 11〉 서울시 온열의자 및 전기히터 사례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경제는 전월대비 소비, 고용 등 내수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생산과 수출 등 일부 실물지표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 전년동월대비 물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에 이어 생산, 소비, 고용, 대외거래 등 대부분의 실물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5.0%수준으로 지난달보다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4/4분기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였고, 7월 잠시 회복국면으로 반전기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8월 들어 다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가 회복흐름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 확충 등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재정 건전성 제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

- 2010년 4/4분기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2011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6월까지 하강국면을 보였고, 7월 반전기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다시 하강하는 모습.

생 산

- 2011년 8월 화학제품 부진, 설비교체 등으로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부진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호조세를 보인다.

소 비

- 2011년 8월, 민간소비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대부분 호조세를 보임. 향후 소매판매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속보지표 동향등을 감안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또한 대외 불확실성이 소매판매 증가를 제약할 전망이다.

고 용

- 2010년 8월, 고용시장은 전월대비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실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여 대체로 개선되었다. 또한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 감소 및 실업률 하락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 가

- 2011년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 하락, 집세를 제외한 서비스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0.1% 소폭 상승.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6.0%에서 5.0%로 낮아져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

- 2011년 9월,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주식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채권시장은 외국인 순매수세를 유지하였다.

대 외 거 래

- 2011년 8월, 수출은 섬유류, 생활용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생활용품, 농림수산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난달보다 축소되었다.

행사소식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1. 11. 7(월) 14:00
- 장소 : 중구문화원 뿌리홀(대흥동 소재)
- 내용 :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등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발전 방안 모색
- 주최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